

KAIST 유희준 교수, 美 IEEE 석학회원 선임

-저전력 초고속 VLSI 설계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아-
성연광 기자

KAIST는 유희준 전자전산학과 교수(47세·사진)가 최근 미국 전기전자학회(IEEE) 최고 영예인 펠로우(Fellow, 석학 회원)에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.



유 교수가 펠로우에 선임된 것은 '저전력 초고속 초고밀도 집적회로(VLSI) 설계 분야의 업적(for contributions to low-power and high-speed VLSI design)'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, 이번에 새로 선임된 3명의 교수 중 유 교수가 최연소자다.

특히, 유 교수는 1988년 KAIST 전기전자공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, 현대전자 등의 산업체를 거쳐 1998년 KAIST 교수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외국에 연구 연가 한번 간 일이 없이 KAIST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IEEE 펠로우로 선임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.

유교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IEEE 국제 고체 회로 학회(ISSCC-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)에 지난 8년간 17편의 논문을 발표해 연평균 세계 최다 논문 발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IEEE 아시아 고체소자회로학회(A-SSCC:Asian-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)와 IEEE 아시아 남태평양 설계 학회(ASP-DAC: Asia South Pacific Design Automation Conference) 등의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4회 수상한 바 있다.

KAIST에 따르면, 유교수는 '저전력 3차원 영상 처리기', '칩 상 네트워크 설계 기술', 및 '인체 매질 통신 칩'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.

<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>